

# 마마보이

(과잉보호)

K양은 친구가 추천한 어느 미팅에 나갔다가 모처럼 잘 생긴 남학생을 만나게 되었다. 얼굴도 흰하게 잘 생긴데다 키도 훤히하고, 무엇보다도 마음에 드는 것은 아주 점잖은 태도였다. 성격도 온순한데다가 젊은 아이들이 갖기 쉬운 객기가 전혀 없어 보였다. 카페를 나와 저녁 식사를 위해 자리를 옮기면서 K양은 설레는 마음으로 “너는 내 꺼야!”를 연발하고 있었다.

그런데 길거리를 잠시 걷는 동안 그 ‘잘 생긴 남학생’은 핸드폰을 꺼내서,

“엄마, 오늘 그 미팅 말이에요, 지금 했는데, 글썄 내가 볼 때는 좀 이쁜 것 같애. 나 개랑 저녁 먹고 들어가도 돼?”라며 미주알고주알 보고를 하고 허락을 받는 것이었다.

“어? 무슨 이런 머슴아가 다 있노?”...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 “애도 내가 맘에 들어서 그러는가 보다.”하고 생각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그러려니’했다.

식사를 하는 동안에 그 남학생은 K양의 마음을 더욱 사로잡아 버렸다. 엄마랑 방학을 이용하여 유럽 여행을 다녔던 이야기하며 샌프란시스코에서 여러 국가에서 온 학생들과 합숙하며 견문을 넓혔던 이야기 등은 그녀를 거의 환상적이고 이질적인 세계로 이끌어 가는 것들이었다. 더구나 마음에 쏙 들었던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절대로 거역하는 법이 없는’ 근래에 보기 힘든 모범생의 면모를 그대로 갖추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K양은 이 잘 생긴 남자애와 ‘어떻게 해보고 싶은 생각이 나서’ 안달이 났다. 그러나 이 점잖은 청년은 하다못해 술 한 잔 먹여 보려는 수작조차도 하지 않았다.

“저녁은 얻어먹었으니까 제가 맥주 한잔 살게요.”

‘마음에 드는 떡을 놓쳐 본 적 없는’ K양은 일 백퍼센트의 확률을 점치며 본격적인 ‘유혹’을 하기로 결심했다. 잠시 이 ‘모범생’의 얼굴에 주저하는 빛이 역력했다. 그 표정에 K양은 적잖이 자존심이 상했다. 그러나 그 다음 그의 행동은 K양을 기가 딱 질리게 만들어 버렸다.

“잠깐만요”라고 점잖게 양해를 구한 그 모범 청년은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꺼내 들더니 통화를 하는 것이었다.

“엄마, 지금 그 여자 애가 맥주를 사 주겠다고 하는데, 나 마셔도 돼?”

1세 반에서 3세에 이르는 걸음마기(期)의 중요한 과제는 자율성과 독립성, 그리고 충동의 자기 조절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다.

이 시기에 있는 어린아이는 흔히 공격적인 충동과 강한 자기주장을 보이며 부정적인 경향을 보인다. 때로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울고불고 난리 치는 분노 발작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 시기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과잉보호의 문제이다.

과잉보호란 어머니가 자식의 독립적인 발달을 막고 지나친 접촉을 함으로써 어린아이를 유아기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도록 만드는 상태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는 익애형(溺愛型) 과잉보호로서 ‘자식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뭐든지 다 들어주고 행동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하자는 대로 따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라는 아이는 자기 행동에 규범이 없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취해야만 하고, 남을 멋대로 조절하며 그것이 안 될 때 분노 발작을 보인다.

둘째는 지배형(支配型) 과잉보호로서, 어머니가 어린아이의 행동을 일일이 간섭하고 명령하여 ‘복종적이고 피동적이며 자신의 주장이 전혀 없는’ 아이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K양이 만났던 헨섬 보이는 이 지배형의 과잉보호를 받고 자란 아이였음이 틀림없다.

여자 친구와 만나서 일어나는 일을 미주알고주알 밀두리콧두리, 그것도 즉각즉각 엄마에게 일러바쳐야만 마음이 편해지는 마마보이라면 그 다음 일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만 하지 않은가.